

泰西文藝新報의 無名詩人考

강 남 주

目 次

- | | |
|-------------------|-------------|
| 1. 緒 言 | 2) 散文詩의 問題 |
| 2. 泰西文藝新報의 詩史의 評價 | 3) 詩作活動과 評價 |
| 3. 無名詩人들과 그 作品 | 4. 結 言 |
| 1) 무가지 詩形의 混在 | |

1. 緒 言

泰西文藝新報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1918년 9월 26일 尹致昊가 발행인으로, 張斗徹이 主幹 겸 編輯人으로 되어 創刊된 타블로이드 판의 순수 문예 주간 잡지이다.¹⁾ 이 잡지는 창간 이후 1919년 2월 17일 사이에 모두 16호가 발행됐으며 이 가운데 8호와 15호는 缺帙로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로는 16호가 終刊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17호나 그 이상이 있었는지 마저도 確認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추측이나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은 1919년 3월 20일에 발행된 「創造」誌 2호의 책 뒷면에 泰西文藝新報의 全面廣告가 게재되어 있었다는 점 등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泰西文藝新報에 대한 研究는 8호와 15호가 缺帙된 상태로서의 16호까지 모두 14호만으로써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泰西文藝新報에 대하여는 現在로서도 注目할만한 先行研究가 있어 왔던

1) 泰西文藝新報를 신문으로 보는 이도 있는 것 같으나, 筆者는 「新報」라는 용어 붙 題號에 사용한 점 외에는 新聞的 要素를 발견할 수 없어 「紙」로서 보다는 「誌」로서의 性格이 강하다고 판단, 雜誌로 보고자 한다.

터이다.²⁾ 그러나 이 研究는 대부분이 이른바 우리 나라의 象徵主義 詩가 있게 했었던 張本人으로서의 岸曙 金億과 象牙塔 黃錫禹에 대하여, 혹은 그들의 詩에 대하여 焦點을 集中하고 있었다. 우리 詩의 現代化에 先鞭을 잡았던 이들에 대하여 集中的으로 研究하고 그 結果에 대한 價値評價를 한다는 것은 詩史的 觀點에서 보면 지극히 當然한 것이다. 그러나 金億이나 黃錫禹 이외에도 泰西文藝新報에는 12名の 詩人들이 創作詩를 발표하고 있었다는 事實을 勘案할 때 이들에 對한 詩史的 위치나 그 活動에 대한 評價를 看過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本稿의 한 觀點이다.

더우거나 黃錫禹나 金億의 빛에 가려버린 이들 12명의 作品들 가운데 일부는 외면해버릴 수 없는 問題性까지 內包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詩史的, 文學的 檢討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다고 보게 된 것이다.

本稿는 泰西文藝新報에 創作詩를 발표했던 詩人 중 金億, 黃錫禹 이외의 詩人들을 「泰西文藝新報의 無名詩人」으로 묶고, 이들의 韓國現代詩 生成과 관련된 詩史的 位置, 文學的 性格을 照明해보며 그 價値에 대한 評價作業을 試圖코자 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2. 泰西文藝新報의 詩史的 評價

泰西文藝新報는 그 출발부터 외국문학의 국내 소개와 국내의 文藝創作 意慾振作에 발행의 목적이 있었음을 뚜렷히 했었다. 號를 거듭할수록 이와 같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다는 것 역시 歷然한 바 있다.

尹致昊의 이름으로 씌어진 創刊辭를 보면 이 雜誌가 志向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確實히 알 수 있다.

본보는 내시의 유명한 소설, 시노, 산문, 가곡, 음악, 미술, 각본 등 일체 문예에 관한 기사를 문학대가의 붓으로 즉절 본문으로부터 충실하게 번역하여 발행할 목적이온바 다년 경영후는바이 오늘에 데일호 발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2) 金容稷, 泰西文藝新報研究—그 詩作과 詩論을 中心으로—(國文學論集, 第一輯, 檀國大學, 1967)

鄭漢模, 「泰西文藝新報」의 詩와 詩論(韓國現代詩文學史, 一志社, 1974)

편증상 불충분한 점이 만사오니 장호재위의 위독하야 주집을 짜라 일반 기자들
은 붓을 더욱더 가다듬어 취미와 실역을 도모하기에 일층 노력을 더 하겠습니까³⁾

文藝全般에 걸친 번역 소개를 이와 같이 분명한 社是로 했던 新聞이나 雜誌는 일찌기 없었다. 그 成功的 遂行 여부에 대한 言及은 일단 留保하고, 이 雜誌가 출발부터 이른바 文藝振興, 혹은 泰西文學의 輸入傳播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적어도 새로운 文學的 局面을 열게 해 주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 雜誌의 創刊辭에서 말하고 있는, 직접 번역을 맡겠다는 「문학대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또 당시로서 李光洙, 崔南善 이외에도 문학대가라고 지칭할 만한 인물이 있었던지는 알 수 없다. 아 물론 이 雜誌를 보면 海外文學의 번역에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은 岸曙, 海夢이었고 이 외에도 三田, 金仁滉, 白大顯 등이 있을 뿐이다.⁴⁾ 이들이 文學大家였던 文學大家가 아니었던 간에 트르케네프, 롱펠로우, 폴·베를레느, 구르몽 등의 외국시를 번역했을 뿐 아니라 프랑스 詩壇의 소식을 포함한 海外詩壇의 소개, Sologob의 人生觀 번역 소개, 특히 注目할 만한 詩論「詩形의 音律과 呼吸」(岸曙生) 등을 집필 게재했다는 사실⁵⁾은 우리 詩를 포함한 우리 文學의 現代化를 위한 進一步한 作業이었음은 사실이다. 다만 이들의 活動이 多樣하지 못했고, 번역 대상의 작품 選定에 있어서도 思慮가 깊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原文에서 직접 번역했다기 보다는 번안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⁶⁾이 당시로서 이들 편집, 제작에 관련한 사람들의 水準이나 限界였다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泰西文藝新報의 執筆者들—海夢 張斗徹과 岸曙 金億이 거의 전부를 도맡다 싶이 했지만—이 비록 탁월한 水準의 글을 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評價를 오늘날의 觀點 내지 水準에서 裁斷式으로 내려서는 안되리라 보고 본다. 당시의 文學的 狀況은 崔南善의 新體詩類나 혹은 기타 開化歌辭

3) 尹致昊, 「우리는 아려야 하겠다」(泰西文藝新報, 創刊辭)

4) 拙稿, 岸曙詩의 成立과 詩史의 位相, 匯蓮語文論集 卷5집, 釜山女子大學, 1977, pp. 3~4.

5) Ibid.

6) 鄭漢模, 韓國現代詩文學史, 一志社, 1974, p. 246.

類가 詩의 主宗을 이뤘다. 小說의 경우는 新小說의 단계를 벗어 李光洙의 「無情」(1917년 每日申報 연재)이 가장 現代의이었다. 그리고 이들 文學作品에서 비로소 西歐世界 혹은 開化된 世界에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西歐의 文學理論이나 文壇動向, 文藝思潮에 대한 우리의 認識은 零碎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文壇的 狀況 속에서 「태서의 유명한 소설, 산문, 시도, 가곡, 음악, 미술, 각본」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것은 확실히 文學史的으로 일대 革新的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⁷⁾ 물론 이 주간 雜誌를 자세히 살펴보면 創刊辭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記事의 種類가 다양하지는 못했다. 가곡, 음악, 미술에 관한 기사는 거의 없었다. 意慾에 實踐이 뒤따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金億, 黃錫禹가 우리 나라에 프랑스의 象徵主義 詩를 도입했다는 점과, 새로운 詩의 理論을 展開시켰다는 점은 이 雜誌가 거둔 가장 큰 효과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⁸⁾ 이와 같은 成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學界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泰西文藝新報」를 통하여 新人들의 創作物이 적지 않게 發表되었다. 新人이라 해도 만 사람들이 아니고 이상에서 例學한 譯者들이 주가 되었지만 하여튼 이들은 당시 六堂과 春閣의 뒤를 이어 이끄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 這間의 소식을 말해주는 것이다.⁹⁾

白鐵은 이같이 지적하면서 이들의 活動을 新人들의 登場으로 밝으며, 그들이 새로운 文壇을 형성해가는 과정으로, 새로운 文學이 展開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었다. 文德守의 견해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泰西文藝新報를 評價하는 내용을 要約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金億은 「詩形의 韻律과 呼吸」(14호) 등에서 韻律의 理論的 관심을 보였으며, 民族에 알맞는 韻律이 創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 雜誌를 통해 제시되었다.

7) 金億, 黃錫禹의 象徵詩 導入과 전개에 관해서는 拙稿 「岸曙詩의 成立과 詩史의 展開」 및 「草創期 現代詩의 迷夢」에서 「미려하나마普及한 바 있음.

8) 金容稷, 韓國現代詩研究, 一志社, 1974, pp.47~48.

9) 白鐵, 新文學思潮史, 民衆書館, 1953, p.84.

10) 文德守, 現代韓國詩論, 宣明文化社, 1974, pp.572~575.

둘째, 自由詩가 主觀的으로 浪漫的으로 深化되고, 그 抒情도 섬세해졌으며, 言語 역시 前期에 비해 상당한 彫琢을 보여주었다.

세째, 崔永澤의 「저리로」(16호) 등에서 散文詩의 創作이 試圖되었다.

네째, 韓國에서 처음으로 象徵主義 詩가 쓰여졌고, 그 基礎가 다져졌다.

다섯째, 開化, 啓蒙主義 文學에서 純粹文學時代로 접어들어 主情的, 浪漫的 傾向의 文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泰西文藝新報에 대한 文德守의 이 評價 가운데에서도 특히 崔永澤의 散文詩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사실로 주목되고 있다.

金容稷 역시 泰西文藝新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詩作들의 導入·紹介에 注目할 만한 발자취를 남겼다. 泰西文藝新報에 翻譯 收載되고 있는 海外詩는 30餘篇 以上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욱 重視되어야 했던 것은 그 30餘篇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作品이 象徵派 詩人의 作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흘러든 象徵主義를 말하는 자리에서 이 雜誌가 주목되어 마땅하리라는 게 明白한 일이 아닐 수 없다.¹¹⁾

그는 泰西文藝新報가 우리 나라에 象徵主義詩가 흘러들게 한 가장 큰 공로를 세웠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泰西文藝新報에 대해 詩誌의 意味도 크게 부여하고 있다.¹²⁾

鄭漢模 역시 泰西文藝新報가 象徵主義詩의 導入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金容稷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詩와 詩論은 1920년대 韓國近代詩의 起點을 이루어 놓는데 크게 貢獻한 것」이라고 못박고, 1) 近代的 自覺에 바탕을 둔 抒情의 美意識의 先行 2) 言語構造에 대해 意識을 지닌 專門詩人의 誕生 3) 自由詩의 韻律에 대한 理論的 展開 등¹³⁾을 泰西文藝新報의 詩史의 重要한 비중으로 꼽고 있다.

이상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泰西文藝新報를 論及하는 데에는 一般的으로 象徵主義의 導入과 關聯지워지고 있으며 그 代表的인 詩人으로는 岸曙와 象

11) 金容稷, 泰西文藝新報研究(上同), p. 58.

12) 金容稷, op. cit., p. 63.

13) 鄭漢模, op. cit., pp. 291~292.

牙塔 그리고 번역에 있어서는 海夢-룡·펠로우에 局限되지만-의 業績이 크게 評價되고 있다. 泰西文藝新報는 이와 같은 점에서 우리 詩의 現代化에 큰 발자취를 남긴 것은 確實하다.

이 밖에도 泰西文藝新報는 이른바 주역이라고 부를 수 있는 上記 詩人들 외에도 상당한 수의 詩人들에게 紙面을 제공, 그들이 詩作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는 文學이 소수인이나 特殊階級の 專有物처럼 생각하기 쉬웠던 당시의 讀者나 文學志望生의 의식을 바꿔 주는 데에도 매우 큰 역할을 했다. 이는 文學의 大衆化에 자극을 준 동시에 새로운 詩人의 탄생에 자극을 주었다는 점에서 泰西文藝新報는 分明히 또 하나의 높은 評價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泰西文藝新報가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作品을 게재했으며 그 作品의 內質은 어떤 것이었던가를 살펴보는 것은 泰西文藝新報의 이같은 功績을 確認하는 作業이 되리라고 본다.

3. 無名詩人들과 그 作品

泰西文藝新報의 이른바 主役 詩人들이 누구였던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들의 創作詩, 翻譯詩 외에도 또 다른 一群의 詩人들이 주목할만한 作品으로 文學活動을 했음도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비록 이들이 泰西文藝新報의 빛나는 위치를 다지는 데에는 助演 이상의 역할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評價의 방법이나 泰西文藝新報를 보는 視角에 따라 달라진 결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無名詩人」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作品은 어떤 것이었던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호 : H. M. 生……신춘향가(新春香歌) 一. 기후의 권(奇遇의 卷)
- 2호 : H. M. 生……신춘향가(新春香歌) 二. 상사의 권(想思의 卷)
- 4호 : 白 大 鑣……취웃춤(산문시)
- 5호 : 海 夢 生……외-외-이다지도?(산문시)
- 6호 : 海 夢 生……우리 아버지의 선물(산문시)

- 7호 : 李 一……海岸의 孤獨
- 10호 : 白 大 鎮……어진 안희
 李 一……나의 노래
 李 一……孤獨의 歌
 崔 永 澤……누이의 이원
 具 聖 書……감사한 문예신보
- 12호 : 崔 永 澤……아들에게
 李 星 泰……作別
 李 秉 斗……無常한 苦樂에서 解脱하라
- 13호 : 嶺南錦城半狂生……祝泰西文藝新報發展(독주의 소리)
 武 卿 生……祝
- 14호 : 三 田 生……멀니간 벗에게
- 16호 : 金 振 聲……세겨울
 崔 永 澤……떠니면서
 이어나는 불
 잠짓고
 저리로
- 溪 園……나의 식년
 開城吟孤生……쓰이러
 意學生

(※缺佚된 8호와 15호는 이 통계에서 除外됨)

위의 목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發表詩人은 모두 12名이고 作品 수는 25편에 이른다. 海夢과 H. M.이 同一人이며 이 사람은 일단 泰西文藝新報의 主幹으로서 本格的인 文學活動을 해온 既成文人으로 간주해서 그가 發表한 4편을 여기서 제외해도 전혀 新人作品으로 봐 무방한 無名詩人의 作品은 21편에 이른다. 이는 적어도 작품수에 있어서 泰西文藝新報가 創刊 이래 終刊까지 사이에 발표한 전체 43편에 이르는 詩에 비해 상당한 數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물론 文學作品을 數로써 云謂한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數的 優勢를 말하고 있는 것은 當時의 非文壇人에게 反映되었으리라고 보는 文學熱의 程度를 짐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文學活動에 대한 動向을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들 無名詩人으로 취급되어 주목을 받지 못했던 詩人 가운데에 주목할 만한 詩人이 있었음은 前

述했거니와 再考의 價値가 없는 作品이 많았다는 事實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일이다. 特히 讀者投稿로 보이는 具聖書의 「감사한 문예진보」(10호 수재)를 비롯해서 13호 「독자의 소리」欄에 발표된 嶺南錦城半狂生의 詩「祝泰西文藝新報社 發展」과, 같은 號에 게재된 武卿生 作「祝」, 16호에 게재된 金振聲의 「感想나는 데르」라는 雜文 속에 섞여 있는 詩「새겨울」 등은 관심을 보일만한 作品이 못되는 것은 確實하다.

1) 두가지 詩形의 混在

泰西文藝新報는 定型詩에서 自由詩로 移行하는데 정점다리 역할을 분명히 했다. 겨우 6개월의 짧은 기간에, 16호 밖에 발행하지 못했는데도 이 기간 동안에 이 雜誌가 보여준 詩의 形成的 變貌는 너무나 뚜렷했다. 우리의 詩文學史上 이와 같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이 큰 變化를 受容한 때는 일찌기 없었던 것 같다. 이는 新體詩의 生硬한 定型性과 歌唱을 목표로 했던 開化歌辭에서 벗어나 西歐 自由詩를 受容하겠다는 時代的 意志와 이 雜誌의 발간이 時期的으로 一致했고, 따라서 이 雜誌가 무리 없이 이를 遂行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雜誌의 初期에 발표된 詩와 後期에 발표된 詩에서 그 분명한 界線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만一화난 방창하고 입무성훈예
계곡간에 졸너가난 맑은시늬물
봄一산의 적막함을 서이치고서
수중속의 잠든시를 놀너난코나

HM生 作

新春香歌 一, 「奇遇의 卷」 37聯

이 詩는 노래만을 위한 가사로서 창작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創刊號의 7면에 「유형가곡부」라는 特設欄이 있었는데 여기에 모두 6聯으로 된 이 詩가 발표되었을 뿐이다.

본보에난 저 티서에 유행호 시아 노리만 여러분의 소기훈클 아니라, 근본

우리에게 잇든 것을 꾀치인 것이라든지, 새로 지은 것으로, 유행되나중에, 아름다운 것이 잇스면 선택해야 키지홀터이 올시다.

「유행가곡부」의 설치 이유를 이와 같이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는 當時로서 詩와 歌를 확실히 구별해서 音樂을 위한 歌辭와 讀誦을 通해 鑑賞하기 위한 歌辭 즉 詩에 대한 意識이 不分明했던 까닭인 것 같다. 위와 같은 글은 同誌 제2호에도 같은 著者에 의해서 「유행가곡부」欄에 또 한번 발표된다.

눈물쏟여 리별한지 우금삼지에
척서조차 쓴어지니 나어이러나
우리님은 구심 학야 날이짓누가
도옹권을 원망하고 불사지시라.

上同 二. 「想思의 卷」 첫聯

이 역시 모두 6聯으로 되어 있어 그 길이는 창간호에 발표된 「奇遇의 卷」과 꼭 같다. 「一. 奇遇의 卷」 「二. 想思의 卷」 등으로 시작된 점으로 봐 이 글은 더 계속될 계획이었던 것 같으나 그 다음호부터는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古典인 春香歌에 새로운 衣裳을 입히고자 한 나머지였던 듯 暗澁한 漢字 成句들이 피해졌다. 그리고 비교적 平易한 새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 作品이다.¹⁴⁾

라고 지적되고는 있지만 한자투에서 크게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한 定型詩로서의 패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新鮮味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이 글은 「形態上으로 볼 때 整然한 外形律 即 4.4.5로 나타나는 字數律을 가지고 있는 點 正형시라고 해야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겠다.」¹⁵⁾ 이 때문에 위에 든 新春香歌는 모두 讀者의 口味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 西洋音樂의 曲調에나 붙여져 불리어질 것 같은 이런 種類의 글이 唱歌가 아닌 「유행가곡부」에 포함된 것 역시 알 수 없는 일이며¹⁶⁾ 그 生命

14) Ibid.

15) Ibid(脚註 6)에서 이 문제가 설명되고 있다)

16) 鄭漢模, op. cit., p.257.

이 걸지 못할 前兆인 것 같기도 했다. 말하자면 泰西文藝新報의 時代는 4·4 調 類에 머무르고 있을 時代는 이미 아니었던 것 같다.

엄격한 定形律의 詩는 이후 12월 17일자의 同誌 10호에서 讀者 具聖畫의 글인 「감사한 문예선보」나, 같은 호의 李一이 쓴 「孤獨의 歌」 등 讀者投稿에서나 散見되고 있을 뿐 차츰 이와 같은 形態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事實을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이 雜誌의 이른바 無名詩人에 의해서까지도 詩의 形態가 變貌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뉘웃춤 (산문시)

白 大 鎮

저각업서,
우습사리되었고,
짜러, 아버지의 거룩하신 일흔까지,
더럽혔습니다.

◇ ◇

아버지 쇠서는—
저씨문에,
몹션히 주부신격도 업스섯고,
맛있게, 잡스신격도 업스섯지요.

(以下略)

同誌 4호에 발표된 위의 詩는 모두 5聯으로 되어 있다. 例文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散文을 行만 바꿔 놓은듯 전혀 外形律은 찾아볼 수 없다. 詩題 다음의 괄호 앞에 「산문시」라고 의어저 있는 데에 대해서는 後述하겠거니와, 적어도 이 詩에서 新體詩가 지니고 있었던 變形된 韻律마저도 벗어난듯 없어진 것이다.

또한 「新春弄歌」에서 4·4·5의 字數律에 맞춰 詩를 쓰고 있던 海夢 자신도 이로부터 불과 3호 뒤인 5호에서는 이와 같은 字數律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海夢으로서 詩作의 큰 變化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외—외—이다지도?

海 夢 生

웃너케도 우리의 마음엔 도흔것도 업고요

스린것도 업습니가! 이것이 잇다하며난
 의-의-우습주도 모르고 읊주도 모를가요
 의-의-이다지도 무시히요?

◇ ◇

웃더케도 더희의 일홈을 쇼리놓혀 부로되
 대답할줄 모름니가! 저희의 가슴속에난
 의-의-동정도 업고요 항시도 읊습가요
 의-의-이다지도 냉정히요?

(以下 略)

이 詩는 모두 7聯으로 되어 있다. 各聯의 첫행이 모두 17字이다. 또 첫글자는 <웃더케>만으로도 충분할 것을 <도>를 더 삽입함으로써 韻律의 效果를 노린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적어도 外形律이 없어진 것만은 틀림 없고 定型詩가 아닌 것만은 確實하다. 그는 定型詩에서 서서히 脫皮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선물

海 夢 生

아버지 이제는 어디계십니까
 높고 넓은 그 구름위에
 높고 넓은 그 궁전에서
 아모것도 모르는 이 조식을
 넘너하시눈 눈으로 보모하시겠지요?

◇ ◇

아침에 끝밤에 잔뜩이머는
 허리를 굽히시면서 저가누위를 바라보시고
 지면에 다녀와서 「아버지」하고 습주지를 피리머는
 뭇뭇히 쓰지도못할 그 글씨를
 열심으로 보시고 깃비하시었지요?
 배-배-그 사랑을-쓰키운 그 사랑을
 아모리니 잇겠셔요.

(以下 略)

6호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詩를 발표함으로써 그의 詩形態의 변모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外形律에서 脫皮하고 있는 현상은 海夢 이

후에도 泰西文藝新報에 발표되는 여러 사람의 詩에서 계속되고 있다.

同誌 7호에는 모두 18聯으로 되어 있는 李一의 詩가 발표되어 있다. 이 역시 마찬가지다. 첫 聯만 살펴보자.

海岸의 孤獨

李 一

해는水平線아리서터지고
西便하늘엔眞紅이물드렷난데
신선한바람은바다우르부러와
나를저비르다시뒤로멀너간다.

(以下 略)

이 詩의 경우는 특이한 점이 있다면 18聯이 모두 4行씩으로 되어 있다는 것 뿐이다. 定型을 찾아볼 수 없다. 李一의 경우는 이 詩 외에도 10호에 발표된 「나의 노래」에서 4行詩를 쓰고 있으며 같은 號의 또 다른 詩 「孤獨의 歌」에서도 역시 4行詩를 쓰고 있다. 그가 泰西文藝新報에 발표한 詩 세편이 모두 4行詩였다는 점에서 그는 우리 詩의 4行詩 可能性을 진지하게 試驗한 詩人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字數體 중심이었던 詩가 그에 와서 每聯 4行으로 그 형태가 바뀔 수 있도록 試圖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노력은 주목을 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定型詩가 自由詩로 移行되고 있었다는 徵候는 이 雜誌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特히 讀者投稿에서는 定型詩와 함께 自由詩도 混在해 있다. 그 좋은 例가 16호의 開城吟孤坐이 쓴 「쓰어라」이다.

이에 앞선 14호에도 상당한 水準의 自由詩가 발표되어 있다. 三田生의 「떨니간 벗에게」라는 書簡文 속에 挿入되어 있는 題目 없는 詩도 마찬가지다. 이 詩는 獨立된 詩欄에 게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며 지나쳐버리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쳐버리기에는 매우 아까운 詩임에는 틀림없다.

일년중 적막한 겨울에
마른가지 지니가는 바람
석려져 싸엿든 님사귀흔드네
청산에 붙으던 씨곡이

목수에 날으던 갈마귀
 어디로 다갔는지
 찬바람 저녁안기회미홀더
 헛된 까귀소리뿐인가

(全 4聯 중 첫聯)

視覺的인 이미지와 觸覺的인 이미지의 交織은 共感帶를 상당히 폭 넓게 형성하고 있다. 또한 <청산>과 <목수>, <불으던>과 <날으던>, <여국이>와 <갈마귀> 등의 併置(juxtapose)는 詩의 效果를 상당히 높여주고 있어, 그 技法面에서도 進一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泰西文藝新報의 이른바 無名詩人들은 定型詩에서 自由詩로 移行되어가는 과정중에서 重要的한 役割을 했던 것이다.

이 雜誌를 共時的으로 把握할 때에는 定型詩와 自由詩가 混在해 있지만, 通時的으로 把握할 때 이들은 自由詩化에 一翼을 담당했다. 우리 詩의 現代化를 위해 이들은 尖兵으로서 한 발자국씩 다가갔던 것이다.

2) 散文詩의 問題

泰西文藝新報가 1.2호에 「유흥가곡부」를 設置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어찌서 「유흥가곡부」가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를 讀者로서는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해명할 수 없는 편집상의 또 하나의 問題는 「산문시」이다.

이 雜誌의 4호 7면에는 「동서시문집」의 欄이 있다. 여기에 발표된 白大鎭의 詩「늪웃춤」에는 제목에 붙어서 괄호속에 (산문시)라는 것이 표기되어 있다. 5호에 발표된 岸曙의 詩「밋으라」역시 제목에 (산문시)가 添記되어 있다. 6호에는 海夢生의 「우리 아버지의 선물」에 같은 현상이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일단 泰西文藝新報가 파악하고 있었던 이른바 「산문시」란 무엇이었던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雜誌는 5호에서 「露西亞의 詩壇」欄을 별도로 마련하고, 트르케베프(Ivan Trugnev)의 산문시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 트르케베프의 산문시와 이 잡지의 4.5.6호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 詩人의 散文詩와는 그 형태나

혹은 내용상 같은 점이 있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泰西文藝新報 자체에서는 해명한 바 없다. 이는 泰西文藝가 散文詩에 대한 명확한 이론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적어도 이같은 誤謬는 泰西文藝新報를 편집하는 쪽에서 透徹한 장르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그들은 「散文詩」란 定型詩와 대립개념이라고만 믿고 그렇게 쓰고 있었던 것¹⁷⁾이다. 형태상 확실히 산문시가 아닌 詩에도 「산문시」라고 添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散文詩를 몰랐기 때문이며 그래서 散文詩와 自由詩를 구별 없이 사용했던 것이다. 散文詩가 自由詩의 下位概念으로 쓰일 때 이들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을지언정, 形態論的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混用될 수는 없는 것이다.

散文詩란 散文形式的 詩의 導入이다. 따라서 그 形態는 散文이라야 한다는 當爲과 非韻文, 즉 散文으로 읽혀야 하는 必要條件을 지니게 된다.¹⁸⁾

이와 같이 常識的인 理論도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앞에서 引用한 바 있는 白大鎮의 詩 「뉘웃춤」을 (산문시)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런 안목에서 보면 泰西文藝新報에 발표된 모든 詩 가운데 散文詩가 아니었던 것이 몇 편이나 되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散文詩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그 형식을 중심으로한 해명을 두엇 더 들여보자.

形式上으로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은 韻文 乃至 律文에 대한 散文이 그 하나이고, 贅글이라는 것이 그 둘이다. 內容上으로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은 創造의 文學에 대한 非創造의 文學을 뜻한다. 이리하여 散文詩라고 하는 詩의 한 장르는 가장 非詩的인 要素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¹⁹⁾

산문체의 서정시를 말합니다. 정형시의 외재물은 물론, 자유시에서 볼 수 있는 소위 내재물의 리듬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상으로 보면 일반산문, 즉 수필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에 詩的인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습니다.²⁰⁾

17) 金春洙, 詩論, 松園文化社, 1974, p. 22.

18) 金大幸, 韓國詩歌構造研究, 三英社, 1976, p. 74.

19) 金容稷, op. cit. p. 65.

20) 崔鉉, 現代詩 10講, 成文閣, 1938, p. 65.

聯 구별이 뚜렷하고 詩行이 분명해 呼吸의 斷續을 되풀이 해주고 있는 여러 詩들을 泰西文藝新報가 「산문시」라고 규정해버린 것은 이 雜誌가 저지른 큰 잘못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泰西文藝新報가 散文詩라고 밝히고 있는 일부 詩作品은 詩가 必須的으로 지녀야할 內在律을 전혀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雜誌의 편집자가 산문시라는 것을 강요했다면 問題는 다르다. 韻律的 感覺으로는 詩를 把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口語體 臺辭와 같은 文章들을 散文詩라고 본 것은 그런 意味에서는 一抹의 妥當性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泰西文藝新報가 지적한 「散文詩」는 그런 意味에서가 아니었다. 얼마간의 內在律을 隨伴해 音樂的 분위기에 이끌리고 있는 것까지 散文詩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지칭하는 散文詩란 民謠調 내지는 律格이 分明했던 韻文詩와 對稱的 의미로 散文詩라는 것을 사용했음을 確認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이 사용한 散文詩란 川語는 그들의 散文詩에 대한 이해부족의 소치에 지나지 않았던, 한갓 誤謬였다고 봐야할 것이다.

정작 散文詩임을 確認해 주어야 할 작품에는 그와 같은 언급이 없었던 것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이러나는 불

崔 永 澤

저기 저곳에 불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모진 바람이 저편에서 불어 온 데요, 어서들 가서 불이 타오십시오, 작구작구 불혀서 환황하고 일거든, 맘들 늦으게시오, 알미운 그 바람은 도리쳐 유공할 수 있지요(矣)

泰西文藝新報 16호에 발표된 이 詩는 전혀 行 구별이 없다. 따라서 형태 상으로는 분명히 散文詩인데도 이 詩의 제목에 앞의 것과 같은 (산문시)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種概念의 不分明 내지 無知에 까닭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泰西文藝新報 16호에는 崔永澤의 詩가 모두 4편이나 게재되고 있으며 「이러나는 불」 외에도 典型的 산문시 「저리로」가 발표되어 있는데 이 역시 (산문시)라는 표시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과적으로 散文詩에는 (산문시)라 언급하지 않았고 非散文詩에는 (산문시)라는 호칭을 주었던 것이다.

여기서 典型的이라고 말한 崔永澤의 詩「저리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당시의 실질적인 산문시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 實相을 훑어 보기로 하자.

저 리 로

崔 永 澤

진실말하고 나서는이는 누구십잇가, 몽똥이를 가진이는 누구십잇가, 칸을 지어이는 누구십잇가, 민썬똥을 듣이는 누구십잇가, 잘똥얏습니다, 어서 빨리 저부터만 항하고 다름질 하십시오, 이것저것을요를 써가안입니다. 이러니저러니 닷흠질할제가 안입니다. 마음을 호가지로 하야, 악견고투분, 하야보십시오, 잘실말을 하섯기는 것저말찬 하십시오, 드신똥똥이문 꼭잡으십시오, 전인칸을 리듬게 쓰십시오, 민썬똥이라도 부로똥기름 힘있게 하십시오, 다시 무엇을 바랄슈야 잇겠습잇가, 이러타고 안저잇습슈야 업지요, 이판 하야도 좇습니다. 어서빨 나아가십시오, 견더기만 용하게 하십시오, 헛슈요는 퍼져 안으리다.

이 詩가 散文詩임에는 설명을 要하지 않는다. 泰西文藝新報에 게재된 산문시의 훌륭한 한 例²¹⁾가 되는 것이 바로 이 詩이다. 우리는 泰西文藝新報의 無名詩人들에 의해 우리 詩文學史上 소중한 한 詩 형태인 散文詩가 創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崔永澤은 우리 詩文學史上 李光洙가 試圖한 뒤 중단되었던 散文詩를 創作, 그 脈을 이어간 詩人이었다는 점에서 그 功勞를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詩는 詩的으로도 상당한 水準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前半部에서 계속되는 의문중결형의 문장구조는 독자에게 상당한 관심을 쏟게 하는 詩法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은 手法은 詩가 지녀야 할 긴장감을 잘 유지하게 해주고 있어 그 構造上 성공적으로 되어 있다. 이어 전개되는 내용은 前半部의 질문에 대한 해답, 즉 행동의 提示이

21) 文德守, op. cit., p.574에 우리의 散文詩에 대한 다음과 같은 言及이 있다.

우리 나라 近代 散文詩의 효시를 어디서 잡아야 할지는 아직 未決 문제이다. 李光洙의 散文詩「獄中豪傑」(「大韓興學報」9호, 1910.1.)에 이어, 崔永澤의 「저리로」(泰西文藝新報 제16호)는 형식적으로 散文詩임은 分明하다.

22) 白大鎮은 泰西文藝新報 등장 이전에도 「新年劈頭에 人生主義派 文學者の 배울 훈을 기대함」(新文界 4 卷 1號), 「文學에 대한 新研究」(同上 4卷 2號), 「西洋文學一瞥」(同上 4卷 1號) 등의 評筆을 들어 文壇活動을 한 바 있다. (金容履, 韓國現代詩研究, p.48 참조.)

다. 이 詩가 時代的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순수한 人間의 心緒를 나타내고 있는 그 叙法이 이 程度를 유지하고 있다면 당시의 詩의 水準으로는 成功的이라고 評價해도 좋을 것이다.

泰西文藝新報가 把握하고 있었던 散文詩가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우리는 實質의인 散文詩가 이른바 無名詩人에 의해서 이와 같이 泰西文藝新報에 의해서 발표되었다는 점을 명심해두어야 할 것이며 散文詩의 새로운 地平이 열릴 뻔 했었다는 詩史의 事實도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3) 詩作活動과 그 評價

散文詩가 詩的 한 장르로 固着化 안된 重要한 理由는 崔永澤을 뒤이은 散文詩 實驗의 亞流가 계속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르의 持續은 亞流가 있어야 하는데도 泰西文藝新報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詩作活動에 있어서는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泰西文藝新報이다.

本稿에서 일컫고 있는 이른바 無名詩人들은 白大鎭을 除外하고는 文學活動의 前歷이 없는 사람들이었다.²³⁾ 이들이 文學活動을 한다는 것은 泰西文藝新報의 과감한 誌面 割愛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雜誌의 業績이 훌륭한 것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건의 조성과 함께 활기차게 文學活動을 한 이른바 無名詩人들로 인하여 文學이 大衆化하는데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고 봐 좋을 것이다. 그 단적인 예는 初期의 海夢, 岸曙, 白大鎭 등의 筆者가 後期에는 전혀 新人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미 이 雜誌의 第2號에서 「유흥가곡부」欄을 新設하고 投稿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作家詩人을 발굴하겠다는 이 雜誌의 意慾의 소산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雜誌는 이어 3號에서도 讀者投稿를 환영하고 있다.²³⁾ 이 후에도 詩欄에는 계속 讀者投稿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있었으며 9호에는 「作品添削部 開

23) 泰西文藝新報의 3호 4면에는 「바람나다」라는 社告가 있다. 여기에는 「한말솜 낫치고져 호는것은 논문이든지, 시든지, 산문이든지 무엇이든지 보너실 석에는 필수 있는더로 청서호야 보너시며……」라는 讀者投稿를 유도하는 글이 보이며 이 「바람나다」라는 社告는 계속된다.

始]라는 社告를 내고 있다. 여기서 文學에 自信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作品을 보내면 大家들이 손을 봐 게재해주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있어 文學에 뜻을 둔 讀者에게 상당한 용기를 주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은 社告가 있는 뒤 새로 보이기 시작한 인물이 李一, 崔永澤, 具聖晝, 李星泰, 李秉斗 등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 「作品添削部 開始」의 효과는 대단했던 것이다.

이에따라 前記한 신인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의 登場은 숨은 文人志望生에게 상당한 자극을 주었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文學이 特殊階層의 所産이라는 인식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時期에 登場한 이들 新人들은 保守的 觀念을 깨고 詩를 大衆化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봐 결코 過讚은 아닐 것이다.

泰西文藝新報가 만약 2월 17일로 終刊이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 現代 詩 草創期의 新進詩人의 登場은 더욱 풍성했고, 崔永澤에 의한 散文詩의 變貌, 發展 역시 더욱 컸으리라고 추측함도 可能케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雜誌는 1919년 2월 17일로 막을 내렸던 것이다.

어쨌든 泰西文藝新報는 新人을 대량으로 발굴했고, 그들에 의해 형성된 無名詩人들로 해서 폐쇄적이었던 詩作活動이 大衆化 傾向을 띠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 詩의 現代化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結 言

泰西文藝新報의 創刊은 우리 詩가 外國詩의 影響을 받게되는 直接的 原因이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岸曙나 海夢의 翻譯詩, 黃錫禹의 象徵主義에 젖은 創作詩 등은 종래의 우리 詩가 지니고 있던 定型性에서 결정적인 變貌를 가져오게 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現代詩의 틀을 가다듬게 해 준 出發點이 되었고 內容面에서도 많은 變化를 가져와 形式과 內容의 相關的 發展을 이룩함으로써 書誌的, 詩史的 價値를 확고하게 해 주었다.

우리 詩의 現代詩化에 결정적 역할을 한 泰西文藝新報는 이와 함께 12명에 이르는 전혀 새로운 詩人을 이 誌面을 통해 소개했는데, 이들은 詩文學

史에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評價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作品을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상당한 問題性을 지니고 있었다.

詩史의 前面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편의상 이른바 無名詩人으로 稱하기로 했는데, 이들의 問題性이란 定型詩에서의 脫皮와 함께 특히 崔永澤으로 代表되는 散文詩의 創作試圖였다고 할 것이다. 뒷날 이들의 試圖가 詩의 한 장르로 確立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 詩가 散文詩로서 創作될 수 있는 可能性이 진지하게 검토되었고, 그 據點이 마련될 뿐 했다는 點에서 意義는 결코 輕視될 수 없다는 것이다.

泰西文藝新報의 이른바 無名詩人들의 詩作活動은 詩作活動의 大衆化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 雜誌가 全國적으로 普及되었다는 점도 重要하겠지만, 新人이라도 스스로 없이 作品을 쓸 수 있고 또 발표된다는 事實을 이들을 作品活動을 通해 立證한 것이다.

泰西文藝新報의 無名詩人들은 오늘날 우리가 享有하고 있는 現代詩가 있게한 先頭走者였으며, 結論적으로 우리가 또 다시 試圖해야 될지 알 수 없는 散文詩의 領域에까지 우리 詩의 可能性을 眞摯하게 打診해보았던 유니크한 詩的 集團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